

韓·中 漢字 共用 方案의 新모색

- 한국 한자어 활용을 중심으로

박석홍*

目 录

1. 서언
2. 기존 논의의 검토
3. 한자 공용 대상 전환의 필요성
4. 한자 공용의 새로운 방향 : 공용한자어
5. 공용한자어의 운용 방안
6. 공용한자어의 한계와 대안
7. 결어

1. 서언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교류 형태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류는 정치·외교·통상 등 국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일반 언중들 간 인적 교류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 언중 간의 교류는 당연히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자는 공통 조어를 가지지 않는 한·중 양국의 언중들이 적어도 문자로써 최소한의 언어교류를 가능케 하는 기초 의사소통(Basic Communication)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일한 형체와 의미를 가지는 한자를 통해 한·중 언중이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 東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출발하여 한자 형태의 통합이나 공용 한자의 선정 등과 같은 한자 공용을 위한 논의가 최근까지 진행되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유형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서사하는 한자는 해당 언어 중의 지위가 각기 다르고, 표준 자형 역시 상이하여 한자 공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한·중 언중들이 혼란된 음성언어를 통한 교류가 아닌, 각국의 언중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문자언어인 한자를 통해¹⁾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제한적이거나 실제 운용 가능한 한자 공용 방안과 해당 언어단위들을 선정해봄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 방법론 수립에 일조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기존 논의의 검토

한자를 사용하는 소위 ‘한자문화권’²⁾ 국가들 중 특히 한국·중국·일본(이하 ‘3국’)은 1990년대부터 한자 통합을 위한 여러 차례의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연구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또 각국의 대표적 어문 정책 관련 기관·연구소·대학들이 이체자를 분석 및 정리하는 등 일정 정도의 관련 연구와 구체적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작업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다.

먼저, 3국은 어휘의 형태와 어휘체계가 다르다. 3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언어별로 고유한 자생의 한자어를 상당

1) ‘문자언어’는 음성언어의 상대적 개념으로서(Dürscheid 2007:19) 언어의 또 다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2) ‘한자문화권’은 한자의 문자적·문화적 영향을 받아 이를 서사체계로 사용하거나 예술포로 구현하는 국가·민족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문화 교류의 결과 및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문자적으로 종속되거나 문화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라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수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한 각국의 상용자 및 교육용 한자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둘째, 한자의 사용 상황과 지위에 따른 문자 정책이 상이하다. 중국은 한자를 제1의 서사체계로 삼아 현행 簡化字 정책을 견지하면서 비교적 엄정한 문자 사용 규정을 마련하는 등(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1992), 문자정책을 어문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³⁾ 그리고 일본은 한자가 보조적 표기수단이고, 또 사용하는 한자수를 제한하기 위해 일정 수량의 한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일본에서의 한자는 ‘마땅히 써야하는’ 문자로서⁴⁾ 가나(假名)가 혼용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일본어의 서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의 한자는 중국 및 일본과 사뭇 다르다. 즉 한국어에서의 한자는⁵⁾ 보조적 표기수단에 불과하며⁶⁾, 교육용 기초 한자 역시 특정 교과를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전술의 한계로 인해 한자 통합 논의는 결국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전산 입력상의 ‘코드(unicode)’ 통합 논의로 방향이 전환되어 한자 통합의 애초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박석홍 2004).

그런데, 2013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中國人民大學 1서 개최된 ‘공용 한자 국제학술 심포지움’에서⁷⁾ ‘한·중·일 30인회’에 참여하는 3국의 문화 지도자들의⁸⁾ 주도로 808자의 ‘3국 공용한자’를 수록한 「中日韓共用八百漢字

3) 이밖에도 중국은 정기적인 언어 문자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자 사용의 현황과 사용상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있다.

4) 일본은 현행 ‘常用漢字 當用漢字’가 칭한 바 있다.

5) 한국은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한자 통합 논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불균형의 입장에 놓여있다 할 수 있다.

6) 공용한자 제정에 있어 충분한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 현실에 있어서 공용한자로 삼을 수 있는 우리말 중의 「常用漢字表」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7) 중국어 명칭은 ‘中日韓共用常見漢字國際學術討論會’이다. 주요 취지는 ‘3국 간 과거사·영토·정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의 공유가치를 확산시키고 세 나라 미래 세대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8) 대표 인물은 진태하·이권재(한국), 紀寶成·楊慧林 阿辻哲次·山崎信夫(일본) 등이다.

表」(이하 '800한자표')를 발표하였다.⁹⁾¹⁰⁾ 이것은 중국의 '現代漢語常用字'¹¹⁾ 2,500자와 일본의 교육용 기초한자¹²⁾ 1,006자 중 중복되는 995자를 추출하고, 이것을 다시 한국의 '한문교육용 기초한자'¹³⁾ 900자와 비교하여 서로 겹치는 800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¹⁴⁾

「800한자표」는 3국 언중들이 필담과 같은 초보적 의사소통이나 간판·안내문 등을 통한 정보·지식의 습득 등과 같은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자적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전의 한자 통합 논의에 비하자면 3국이 함께 공동의 한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한자 공용 논의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800한자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800한자표」에는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먼 한자들을 다수 포함하고

-
- 9) 『중앙일보』 2013년 11월 21일.
 10) 이 공용한자는 한국 측이 제의하고(『중앙일보』 2013년 7월 10일) 중국인민대학 총장인 紀寶成 |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 7월 8일 제8차 회의 때 마련한 800자의 공용한자 초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新華網』 2013년 7월 8일자.) 원래 800자로 자수를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각국이 가감을 요구하여 '甲·幾·丹·洞·卵·柳·墨·房·杯·凡·丙·叔·甚·瓦·唯·乙·丁·帝·且·匹·凶' 등 21자를 제외하고, '強·開·舉·教·里·晚·冰·産·歷·研·飲·絶·製·衆·眞·窓·採·清·青·韓·郷·賢·央·區·局·茶·團·寫·點' 등 29자를 새롭게 추가하여 808자를 우선 확정하였다.
 11) 중국의 「現代漢語常用字表」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서 1988년에 선정한 3,500자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通用規範漢字表」 規範漢字 級字 출판·인쇄·사전·정보처리 등 1급보다는 사용 빈도가 낮은 3,000자의 2級字 그리고 사람의 성씨·이름·지명·과학기술 전문용어 및 초·중등학교 문헌문 교육 등에 사용하는 1,605자의 저빈도의 3級字 | 수록하고 있다(2013년 기준).
 12)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1981년에 선정한 1,945자의 常用漢字 | 대해 수년의 개정 작업을 거쳐, 2010년 9월에 기존의 常用漢字 |서 5자를 빼고 다시 196자를 추가한 2,136자의 常用漢字 | 새로 선정한 바 있다.
 13)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는 1972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2000년 12월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존의 기초한자에서 44자를 교체하여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의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새로 지정하였다.
 14) 『세계일보』 2013년 7월 12일.

갖추고 있을 뿐, 한자 자형 통일에 관한 그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단순한 필형 차이를 보이는 한자를²⁰⁾ 제외하고, 형체상 큰 차이를 보이는 한자나²¹⁾ 동음 차용의 한자는²²⁾ 한자를 통한 의사소통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800한자표」가 언어를 달리하는 3국 언중들의 의사소통이 가능케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이에 부합하지 않는 한자들의 수록, 또 그 반대로 필요한 한자를 배제한 것은 공동 한자 마련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자 형체가 통일되지 않고서는 한자 공용은 한낱 탁상공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 또 공용 가능성이 높은 한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들 한자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800한자표」가 공용 한자 추출 방식을 과도하게 단순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자 공용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요구된다.

3. 한자 공용 대상 전환의 필요성

전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자 공용은 적어도 언어를 달리하는 언중 상호 간에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자를 통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한자 공용의 주체를 한국어와 중국어를 각각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과 중국의 언중들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내용들을 기술하였다.

기존의 한자 공용 방안의 궁극적인 문제는 개별 한자, 즉 單字 ㄱ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단자만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20) ‘骨 骨’, ‘內 内’, ‘空 空’ 등은 비록 특정 필획의 필형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한자의 인지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21) 簡化字 草書 楷書化 ㄱ 실현된 ‘书(書) · 东(東) · 车(車)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2) 예를 들어 간화자 중의 ‘面 面 麵 發 發 髮 ㄱ 각각 겹하고 있다.

한자 형태소가 결합된 단어가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의사소통의 실제와 중국 및 한국의 언어 현실 등의 측면에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에서 운용되는 최소한의 언어단위는 단자가 아니라 단어이다. 기존의 한자 공용 논의에서는 한·중 언중이 문자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로 단자에서 찾았다. 그런데, 언어에 있어 최소의 자립 운용 가능 단위가 단어라는(錢乃榮 1995:107)²³⁾ 가장 기본적인 언어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한·중 언중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단자를 이용한 의사소통보다는 단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언어의 실제에 훨씬 더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중국어에서 하나의 한자가 단일어로서의 1음절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또 한국어에서도 단음절의 한자어가 어간을 형성하는 경우도 다수 있지만, 한·중 공히 하나의 한자는 자립 운용되지 못하는 형태소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중국어 단어의 다음절화이다. 한자는 ‘형태소-음절문자’로서(裘錫圭 1988:18) 단음절어라는 중국어의 유형학적 특질에 적절히 부합하여 왔다. 고대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한자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었고, 현대중국어 내에서도 여전히 1음절 단어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언어변화 역시 음운이나 문법에서보다 어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어 어휘 변화의 주요한 양상 중 하나는 다음절화이다. 1음절 단어는 점차 여러 의미항목을 동시에 가지게 됨으로써 표의상의 과부하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단어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함으로써 2음절 이상의 다음절 단어로 변하였다. 이때 원래의 1음절 단어는 그 지위가 형태소로 전환되어 독립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단어 대부분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형태소를 결합시키는 합성법을 운용하여 造語 1었다(Norman 1988:86). 이로써 현재 중국어 단어

23) 단어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김창섭 2008:32), 본고에서는 한자어 및 중국어 단어의 운용 실제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구조문법의 관점에서 단어를 정의하였다.

의 상당수는 2음절²⁴⁾ 혹은 그 이상 음절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한자만으로는 분명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어 언중들도 단자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중국어의 어휘 변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로지 한자의 표의적 성질에 근거한 단자 중심의 한자 공용은 의사소통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어 어휘 중의 한자어도 대부분 다음절어이다. 중국어에 기원을 둔 한국 한자어는 수용 초기부터 낱글자 형태의 형태소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최소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된 하나의 단어로 수용되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한자어는 형태소가 교체되거나, 혹은 형태소가 분리되어 단독으로 표의기능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내에서 1음절 한자어의 표의상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다. 심지어 한국어 내에서 자생한 한자어 역시 1음절보다는 2음절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어 문법 요소를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의미 표시의 명확성과 단어 음운구조의 안정성 추구를 위해 다음절, 특히 2음절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로써 한국어 언중에 있어서도 단자가 아니라 다음절의 한자어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의 세 측면을 살펴볼 때, 한·중 언중 모두 단자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로 기존의 단자 중심의 한자 공용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24) 중국어 단어들 중에는 離合詞 卜 같이 형태소 간의 결합 관계가 비교적 느슨한 단어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지만, 대체적인 형태 변화의 추이는 단음절 단어에서 2음절 단어로 변화하는 추세가 분명하다. 가령 고대에 '國·服'으로 '나라'와 '옷'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었지만 현대중국어에서는 이 단음절의 한자만으로는 의미가 불분명하며, 이에 '國家·衣服' 家·衣 卜 앞 또는 뒤에 부가되어야 해당 의미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4. 한자 공용의 새로운 방향 : 공용한자어

전술의 언어 현실에서 볼 때, 한·중 언중 간의 의사소통은 단자가 아니라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자 공용을 단어 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련 방법론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한자어의 공용 가능성

한국어는 발생학적으로나 유형학적으로 중국어와는 다른 언어이다. 따라서 어휘 역시 고유의 특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용된 중국어 어휘²⁵⁾, 즉 한국 한자어는 오랜 세월동안 사용 및 동화됨으로써 한국어 어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체계 중 외래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점차 고유어를 대체하거나, 또는 고유어와 서로 대립하며 공존해왔다. 이밖에도 한자어 중에는 근대에 일본에서 조어된 것들도 다수 있다. 이들은 중국어 어휘체계 내에도 수용되어 현재까지 한국어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중국어 단어와 동원 관계를 형성하면서 형태적으로 서로 대응관계에²⁶⁾ 있는 한국 한자어는 한·중 언중 간 공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임은 분명하다.

25) 중국어의 입장에서 볼 때 한자어는 일종의 중국어의 域外方言 (sino-xenic dialects)적 성질을 가지는 단어라 할 수 있다. 중국어의 역외 방언은 중국 밖 지역, 특히 한국·일본·베트남 등지의 언어에 존재하는 중국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언어요소를 가리킨다(Karlgren 1940:9). 칼그렌은 특히 이들 非·국어권 지역의 한자음을 토대로 중국어 역사언어학을 연구한 바 있다.

26) 일종의 어휘대응이라 볼 수 있다. 이들 단어는 반드시 동의의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의미항목이 대체로 일치한다.

2) 공용단어의 명명

공용단어의 선정에 앞서 이것의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공용단어의 정식 명칭을 ‘기초 의사소통용 한·중 공용한자어’라 칭하였다. 이 명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첫째, 단어 공용의 수준을 명시하였다. 전술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한중 간 단어 공용은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기초’가 바로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 의사소통은 일정 정도 체계를 갖춘 국제어나 공용어를 통한 언어생활 전 분야에 걸친 의사소통이 아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언어단위를 활용하여 언중 상호 간에 최소한의 의미 전달 및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필담을 통한 기초적인 정보의 교류, 또는 안내문 중의 문자를 통한 기초 정보의 습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용단어의 명칭에 ‘기초’란 단어를 명시하였다.

둘째, 단어 공용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단어 공용의 궁극적 목적은 한·중 언중의 의사소통이다. 특히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어 언중에게는 한국어 내에 이미 존재하는 한국어 단어로써 중국어 언중과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일정 정도의 한자어를 한자로 구현할 수 있는 한국어 언중에게는 공용될 수 있는 한자어와 그렇지 못한 한자어의 예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중국 언중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²⁷⁾ 이에 ‘의사소통용’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셋째, 공용하는 언어단위는 ‘한자’가 아니라 ‘한자어’, 즉 단어라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한·중 간 의사소통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공용될 수 있는 언어단위는 단자가 아니라 단어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단어를 뜻하는 형태소 ‘어(語)를 포함하는 ‘한자어’란 명칭으로 공용하는 언어단위가 단어라는

27)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어 언중들은 중국어 언중과의 필담 과정 중에 한국 한자어를 사용하여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경험을 종종 가지게 된다. 만약에 사전에 제시된 공용한자어를 통해 해당 한자어의 공용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실제 의사소통에 있어 시행착오 없이 보다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단어’라 직접 칭하는 것이 공용 언어단위가 단어임을 더욱 분명히 나타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어’는 이것이 어떤 서사 형식으로 구현되었는지, 또 어떤 유래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어주지 못하는 일반적 개념이다. 따라서 한·중 언중이 공용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한자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단어’는 ‘한자어’로 명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셋째, 향후 한·중·일 3국 간 범용될 수 있는 공용단어 명칭의 기준을 미리 제시하였다. ‘한자어(Sino-Korean)’는 중국어 단어에 기원을 둔 한국어 단어의 한 종류이다. 중국어에서도 이를 ‘漢字詞’로 칭하기도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 명칭에는 공용 단어의 서사형식이 한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어 중의 한자어를 ‘漢語(かんご, Sino-Japanese)’라 칭하고 있다. 중국어에서의 ‘漢語’는 민족적 개념의 중국어 명칭이며, 또한 ‘普通話’를²⁸⁾ 대신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에서의 ‘漢語’는 3국 공용단어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공용되는 단어의 서사형식이 ‘한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한자어’라는 명칭이 ‘漢語’보다 더 적합함을 사전에 알리고자 하였다.

3) 공용한자어 선정의 원칙

‘기초 의사소통용 한·중 공용한자어(이하 ‘공용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원칙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 한자어가 공용한자어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단어 공용의 핵심은 한국어와 중국어 내에 이미 공통으로 존재하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어 언중이 새롭게 배워야 하는 단어로 공용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단어 학습이지 공용이 아니다. 한국에서 자생한 한자어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어 대부분은 중국어 언중들에게 있어서도

28) 중국 표준어의 공식명칭인 ‘普通話’는 ‘현대표준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결코 생경한 것이 아니다. 한자 형태를 간화자에서 번체자로 전환한다면 바로 중국어 언중들 자신의 모국어 단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한자어를 중심으로 공용한자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중국어 언중에게 언어 사용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어 언중은 한국어 언중보다 오히려 공용한자어의 적극적 사용 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 2음절 한자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자어의 근간은 2음절어로서 1음절 한자어들보다 월등히 다수이다. 이는 한자어 유입 당시부터 대부분 두 개의 한자가 결합된 형태로 한국어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노명희2005:70). 2음절 한자어는 또한 의미 표시 측면에 있어서 전체 한자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음절 한자어는 대부분 어간 또는 어근을 이루는 2음절 한자어에 접두어 또는 접미사 형식의 형태소가 결합된 형식인 경우가 많다.²⁹⁾ 또 4음절 이상의 한자어는 2음절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인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처럼 2음절 한자어는 전체 한자어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중이나 표의적 비중 모두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마찬가지다.³⁰⁾ 이로써 단어의 공용에 있어서 2음절 한자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형태적으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는 한자어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음절의 백화계 한자어는³¹⁾ 제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단어

29) 3음절 한자어에 사용되는 접사는 한자 빈도 조사에서 해당 한자의 빈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접사로 사용되는 한자의 빈도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30) 中國教育部語言文字信息管理司 「年度媒體高頻詞語表」에 수록된 단어 2,369,349종 중 누적률 90%에 해당하는 13,656종 단어를 해당 음절수에 따라 분석해보면 2음절의 단어가 전체 단어 중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절 대비 1음절 단어의 수는 전체 단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음절수	단어량	비율(%)	
1	2,097	15.35	84.64
2	10,085	73.85	
3	1,173	8.58	
4	283	2.07	
5	13	0.09	
6	5	0.03	

31) 백화계 한자어는 중국어에서 직접 차용하였지만 점차 한국어로 변용된 한자어이다.

를 공용 단어로 선정한다면 한국어 언중들은 해당 단어의 어원을 따져야 하고, 이를 다시 한자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3) 공용 한자어 선정 절차 및 방법

공용 한자어 선정은 앞의 몇 가지 공용 단어 선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과정을 거친다.

(1) 한국 한자어의 추출

공용한자어 선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용 대상이 되는 한자어를 추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어휘사용 실태조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선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서상규(2009)의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배주채(2010)의 『한국어 기초어휘집』, 그리고 장경희 등(2012)의 『초·중·고등학생의 구어 어휘 조사』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텍스트나 언어 자료 등에 나타난 어휘 사용 실태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다만, 대규모 조사인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먼저 소규모 조사를 통해 관련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고,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자어를 추출한 다음에는 이중에서 다시 2음절 한자어를 추출한다. 이때의 2음절 한자어는 형태적으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2음절 한자어 추출 후에는 이들에 관한 한자어 목록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는 어휘량의 측면에서 의사소통에 충분한 양의 한자어가 확보되도록 한다. 또 내용면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선정되도록 한다. 이를 위

일종의 歸化語 (aturalized word)로서 본래의 어형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며 거의 고유어처럼 쓰인다. ‘보배(寶貝 · 上頭 · 匹段 · 木棉 · 大紅 · ‘사탕(砂糖 · 白菜 등이 이 예에 속한다(심재기 2010:42,53).

해서는 한국어 단어를 세심하게 살펴 한자어임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중국어 어휘집의 선정

다음절 한국 한자어의 추출과 관련 어휘목록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한국 한자어와 형태 및 의미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중국어 어휘집을 선정한다. 대규모 어휘 사용실태 조사 결과보고서도 좋겠고, 또는 권위 있는 중국어 사전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국어 어휘를 대표할 수 있는 어휘집이어야 한다.

중국어 어휘 사용실태 조사 결과보고서로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중 최근의 어휘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중국 교육부 산하 語言文字信息管理司의 「2011年度媒體高頻詞語表(2012)」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것은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조사 대상으로 한 말뭉치(corpus) 분석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최신 어휘를 포함하여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어휘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다만 표본의 특성상 글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언론 보도와 관련한 특정 단어의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는 실제 단어 사용 상황의 왜곡 가능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휘 조사 결과보고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또 기본어휘 중심으로 공용 한자어를 선정코자 한다면 중국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편찬한 중형의 표준어 사전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대형 사전은 실제 의사소통에 잘 사용되지 않은 단어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중형 사전은 일정한 언어 규범에 의거한 필수 기본어휘를 수록한 경우가 많다. 이 조건에 잘 부합할 수 있는 사전으로는 中國社會科學院 語言研究所의 『現代漢語詞典』이 있다. 이 사전에는 56,000여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 표제어는 표준어를 널리 보급하고 어휘 규범을 확정코자 하는(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5: 「前言」) 중국의 언어정책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現代漢語詞典』은 또한

표제어를 조정하고 신어를 보완하는 등, 중국어의 어휘변화 실태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 사전은 공용한자어 선정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사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형태소 결합 형식의 일치 여부 분석

한국 한자어 어휘목록이 작성되고 중국어 어휘집이 선정된 후에는 해당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단어의 형태소 결합(Compounding of Morpheme, CM) 형식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 분석은 한·중 간 단어의 공존 여부 분석이기도 하다. 여기에서의 ‘공존’은 동일한 형태소로써 동일한 결합 형식을 띠고 있는 단어가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분석은 해당 단어의 공용 가능성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한·중 단어 간의 형태소 결합 형식 일치 여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단어의 형태소 결합 형태가 일치하는 유형([CM₁]), 둘째, 동일한 형태소를 취하였지만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단어의 형태소 위치가 서로 뒤바뀐 유형([CM₂]), 셋째, 한국 한자어의 형태소 결합 형식과 같은 중국어 단어가 아예 없는 유형([CM₃])이다. 미리 짐작해보면 이중 [CM₁]이 공용한자어 선정 가능성이 높고, 또 [CM₃]은 공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유형이다. 그렇지만, 공용한자어 선정 여부는 아래의 의미연관도 분석이 함께 진행된 후에야 결정될 수 있다.

(4) 의미연관도 분석

한·중 단어 중에서는 한자 형태상 簡·繁 | 차이만 제외한다면, 한·중 언중 모두에게 친숙한 단어들이 많다. 이러한 ‘친숙’함은 형태소 결합 형식의 동일 혹은 유사성뿐만 아니라 의미연관(Semantic Congruence, SC)의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미연관도가 높은 단어를 많이 추출해낸다면 그만큼 공용한자어의 효용성 역시 더욱 증대될 것이다.

형태소 결합 형식의 일치 여부 분석이 해당 한자어의 공용가능성 그 자체

그런데 [CM₃]에 속하는 단어는 한국어 어휘체계에서만 존재하고 중국어 중에는 없는³⁴⁾ 한자어이다.³⁵⁾ 즉 한·중 간 공존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CM₃]에 속하는 한국 한자어는 중국어 문법 구조를 모방하여 조어진 한자어들이어서 한자 형태소의 의미 및 결합관계의 분석을 통해 의미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의미 전달의 불명확성을 초래함으로써 의사소통상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것은 공용한자어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6) 공용한자어 급수의 부여

앞에서 확정한 공용한자어는 의미연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I]급과 [II]의 급수를 각각 부여할 수 있다. [I]급은 [SC₁]에 속하는 공용한자어이다. 이들은 의미연관도가 매우 높아 공용한자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II]급은 [SC₂]에 속하는 한자어이다.

그런데 [I]급 공용한자어 중 [CM₂]에 속하는 것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어 언중으로서 해당 공용한자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공용한자어에는 [I-1]의 급수를 별도로 부여하고 해당 한국한자어를 병기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II]급 공용한자어는 의사소통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의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한자어를 병기해주어야 한다.

앞의 [I-1]이나 [II]급에 속하는 공용한자어는 운용상 다소 번거로움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형태소 결합 형식과 의미의 상이함은 오히려

34) 정확히 말해 이 유형은 ‘중국어 어휘집’에 없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대형 중국어 어휘집일 경우에는 한국 한자어와 동일한 형태소 결합 형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

35) 이들 한자어는 한국어 문법 혹은 중국어 문법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어휘체계 내에서 자생한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자 형태소가 합성된 한자어나, 순수한 고유어를 한자로 음차하여 적은 한자어가 이 예에 속한다. 전자의 예로는 感氣·三寸·寒心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査頓’ 등이 있다(심재기 2010:33,42).

한·중 인증들 간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고 기억을 도움으로써 실제 운용 시에는 정확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공용한자어 선정의 예시

한·중 인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공용한자어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텍스트 또는 구어 자료에 나타난 한자어에 대한 전수조사가 최선이다. 그렇지만 완벽한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대한의 어휘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 표본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공용한자어 선정과 방법론 수립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이하 『초등국어』)에 수록된 한자어를 표본으로 삼아 공용한자어의 실제적 선정과 방법론 수립을 위한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³⁶⁾³⁷⁾

『초등국어』에는 모두 2,600여 개의³⁸⁾ 한자어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중 2,383개가 2음절 한자어이다. 이 2음절 한자어들을 간화자 표기 형식으로 전환한 후 이들이 『現代漢語詞典』³⁹⁾에 수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조

36) 『초등국어』는 이전부터 한국어 어휘 연구의 1차 자료로 자주 운용되었던 매우 중요한 어휘조사 자료이다. 『초등국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참고 가치를 지닌다. 첫째, 기초 의사소통에 충분한 양의 기초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집필 및 편찬 과정에서 어문 교육 중 중점을 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어휘의 선정과 충분한 어휘량 수록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둘째, 특정 분야나 교과에 치중하지 않고 언어 활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고유어·혼종어·한자어 등 다양한 어종의 ‘기본어휘’가 골고루 수록되어 있다. 이중 한자어는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최소한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충분한 양을 포함하고 있다.

37) 중학교 교과서에는 빈도가 낮거나 난이도가 높은 어휘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서상규 2009:40), 이는 충분한 수량의 기초어휘가 초등국어에서 이미 상당수 출현하였고, 중학교 교과서는 이 어휘들을 토대로 고난이도 어휘를 추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38) 백화계 한자어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어 중 중복 출현 횟수를 배제한 수치이다.

39) 본고에서는 『現代漢語詞典』 2005년 제5판)을 참조하였다.

사해보았다. 그 결과 [CM₁] 또는 [CM₂]에 속하는 ‘공용 대상 한자어’ 1,717개를 추출해내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이들 한자어에 대해 한·중 간 의미연관도를 대조 분석하여 해당 한자어가 [SC₁]과 [SC₂]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분석하였다.

앞의 과정 중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을 거쳤다.

첫째, 형·의가 다른 한자 형태소를 취한 단어라도 의미연관도가 높으면 [CM₁]로 간주하고 [SC₁]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한자어 ‘豫感’·‘豫防’·‘豫報’ 등에서의 ‘豫’는 중국어에서 모두 ‘預’의⁴⁰⁾ 간화 형태인 ‘預’로 쓰고 있지만, 해당 단어들은 서로 동일한 의미이므로 [SC₁]로 분류하였다. ‘砂漠’(한)과 ‘沙漠’(중) 역시 이 예에 해당한다.⁴¹⁾ 이들 한자어들은 현재는 비록 의미가 다소 상이한 형태소를 취하고 있더라도, 문자적으로는 이체의 관계에 있을 뿐 단어 의미의 변화를 이끌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들 역시 이형 이체 유의어로서 근본적으로는 같은 단어이므로 [CM₁]에 속하는 [SC₁]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다음절의 성어나 고정구의 일부로 등장하는 2음절 한자어는 [SC₁]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現代漢語詞典』의 표제어 중에는 한국 한자어 ‘屋上’·‘完璧’·‘大聲’과 상응하는 중국어 2음절 단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屋上架玉’·‘完璧歸趙’·‘大聲疾呼’ 등에는 해당의 2음절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 해당 한국 한자어에 대응하는 부분은 한국 한자어와의 의미연관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SC₁]로 분류하였다.

셋째, [SC₁]로 분류되는 단어라 하더라도 실제 의사소통에 있어 사용 가능성이 극히 낮은 비범용적 한자어는 제외시켰다. ‘水獺’·‘白堊期’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단어는 『초등국어』의 일부 단원에서 특징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

40) ‘豫 預 豫 豫’를 ‘기쁘다’라는 뜻의 서면어용 형태소나 河南省 | 약칭을 나타내는 전용자로 사용하고 있다.

41) 우리말에서의 ‘사막’은 한자로 ‘沙漠 砂漠 成因 | 따라 열대 사막, 해안 사막, 내륙 사막, 한랭지 사막으로 나뉘지만(『표준국어대사전』), 해안 사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육지에 위치하는 사막이므로 ‘砂漠’으로 쓰는 것이 실제에 더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해 등장시킨 단어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으므로 공용한자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중 단어 간의 결합 형식 및 의미연관도에 근거하고, 또 앞의 몇 가지 분류상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1,717개의 공용한자어를 분석해보면, 공용한자어는 [SC₁+CM₁], [SC₁+CM₂], [SC₂+CM₁]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중 비교적 원활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높은 [SC₁+CM₁]에는 [I]의 급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실제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SC₁+CM₂]와 [SC₂+CM₁]에는 각각 [I-1]과 [II]의 급수를 부여하였다. 앞의 전 과정의 결과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한·중 공용단어의 선정

한자어의 예시	공존 여부	한·중 간 연관도		한자어의 수			급수
		결합형태	의미				
内容 表現 人物 整理 方法	+	CM ₁	SC ₁	1,619	1,624	1,717	I
紹介 運命 運搬 榮光 和平	+	CM ₂	SC ₁	5			I-1
先生 清掃 寫眞 課題 人間	+	CM ₁	SC ₂	93			II
親舊 便紙 適切 始作 當身	-	CM ₃	-	666			제외

앞 표에서 나타내었듯이, 『초등국어』를 표본으로 한 공용한자어는 [I]급 1,624개, [I-1]급 5개, [II]급 93개이다. 이들 1,717개의 공용한자어를 모두 열거하여 제시해보면 【부록1】과 같다.

『초등국어』의 한자어는 한국 한자어를 대표할 수 있는 ‘기초한자어’라⁴²⁾ 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를 표본으로 추출한 공용한자어 역시 의사소통에 충분한 수량과 수준을 확보하였다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추출한 공용한자어는 한·중 언중 간의 의사소통에 실제 사용 가능한 공용한자어의 모형으로서, 만약 이것이 공용한자어로 실제 사용이 되어도 한·

42) ‘기초한자어’란 ‘기초어휘’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기초적인 한자어를 의미한다.

중 언중 간 의사소통에 있어 일정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공용한자어 모형은 향후 본격적인 공용한자어 선정에 경험적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자 공용 방안과 관련 방법론 수립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5. 공용한자어의 운용 방안

공용한자어가 실제 운용되기 위해서는 한·중 언중의 관심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국어 언중은 공용한자어를 정자인 번체자 형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공용한자어 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언중들은 공용한자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에 대한 학습 역시 병행되어야 하므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한자를 모국어 서사체계로 삼는 중국어 언중들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⁴³⁾ 더구나 별도의 공용한자어 어휘목록을 가지면서 공용한자어를 일일이 기억해두기란 더욱 어렵다.

공용한자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학습에 의한 습득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학습의 부담감으로 인해 공용한자어 운용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언중 간의 언어 교류 중 해당 공용한자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용한자어를 의미 유형별로 분류한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도 공용한자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의미 유형은 사람, 음식, 복장, 물건, 사회, 정보, 담화, 공간, 시간, 생물, 자연, 동작, 성질, 수량, 추상과 같이 15개의 의미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배

43) 한국어 언중의 경우에는 공용한자에 속하는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 및 어원 학습과 쓰기 노력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채 2010:195~222). 또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인간과 인간관계, 가족과 친인척, 직업과 직장, 신체·생리작용·병·치료·성, 감각과 감각기관, 생각·감정·성격·태도,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교육·학습·학교생활·학문, 예술·취미·놀이·게임·운동, 정치·사회·경제·교통·국방, 자연현상, 정보·통신, 언어, 종교·믿음 등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장경희 2012:202~248).

모국어 사용에 있어서는 언어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어휘목록 중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습득되지 않은 공용한자어는 실제의 의사소통에서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때 의미 유형별로 분류된 공용한자어 일람표를 참조한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부합하는 해당 공용한자어를 목록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공용한자어의 한계와 대안

공용한자어 선정의 목적이 한·중 언중 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임을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의 ‘최소한’이라는 것은 한·중 언중 간 의사소통에 충분한 수준의 공용한자어 선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말이다. 전술의 공용한자어 선정 과정에서 발견되고, 또 이를 통해 예상되는 공용한자어의 한계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공용한자어에는 상당수의 基礎語彙⁴⁴⁾ 배제될 수 있다. 한국어의 기초어휘 대부분은 고유어이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가 있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⁴⁵⁾ 단어의 형태가 한·중 간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기초어휘가 제외된

44) 여기에서의 ‘기초어휘’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어휘를 가리킨다.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어휘’가 있으나, ‘기본어휘’는 동원사 규명에 있어 사용되는 기본어휘(fundamental word)를 가리킨다(Norman 1988:12).

45) ‘몸-신체’, ‘겨레-민족’ 등이 그 예이다.

어휘체계로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常用語彙卜 배제될 수 있다. 각 언어에는 언어생활에 자주 쓰이는 상용어휘가 있다. 이들은 현재의 사회·문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휘들이다. 그런데 공용한자어는 비교적 오랜 연원을 공유하는 한자어들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현대에 와서 각 언어권에서 생성된 다양한 상용의 단어는 설령 한자 형태소의 결합에 의해 조어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용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한·중 언중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전술한 한계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어휘체계가 다른 한국어와 중국어에 이미 공존하고 있는 단어를 공용단어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언중 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 도구를 마련한다는 공용한자어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 정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공용할 수 있는 기초어휘와 상용어휘의 수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국어 어휘 중 고유어와 한자어가 유의어의 관계로 대응하는 사례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기초어휘와 상용어휘로 사용될 수 있는 공용한자어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한·중 언중들의 최소한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초보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제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7. 결어

언어를 달리하는 한·중의 언중들이 한자가 가지는 시공 초월적 특성에 근거하고, 또 외국어 학습이 아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국의 언어단위를 이용

함으로써 ‘최소한’ 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호 진전된 교류를 위해 매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문자언어까지 전혀 익숙지 않은 언어권의 언중들을 만났을 때 서로 소통이 곤란한 상황을 가정해 보면 더욱 확연히 부각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한자는 이것을 공유하는 언중들 상호간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임이 분명하다. 다만 각국의 언어변화에 따라 개별 한자로써는 이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단위를 단자에서 단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중 공용한자어의 선정을 제안하였고, 관련 절차 및 방법론을 실례와 함께 제시해보았다.

한·중 공용한자어의 선정은 에스페란토어나 초방언적 혼성언어와 같은 별개의 언어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적어도 한자 또는 이것으로 구성된 한자어에 익숙한 한·중 언중들이 이를 통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도록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제안한 공용한자어와 관련 방법론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한자 활용 방안 중의 하나이다. 공용한자어는 앞의 공용어처럼 완전한 언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지만, 양국 간의 교류 증진과 상호 이해에 충분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계기로 앞으로도 음성언어로 통하지 않는 한·중 언중, 나아가 한·중·일 언중들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한자 공용의 방법론이 제안되기를 기대해본다.

參考文獻

-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국어』(전 학년 전 과정), 서울: 2005.
- 김창섭, 『한국어 형태론 연구』, 광주: 태학사, 2008.
-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광주: 태학사, 2005.
- 박석홍, 「韓·中·日 漢字統合論議의 回顧와 課題」, 『중국어논총』 제18집, 2004.
- 배주채, 『한국어 기초어휘집』, 서울: 한국문화사, 2010.
- 서상규,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09.
- 『세계일보』 2013년 7월 12일.
- 심재기, 『국어 어휘론 개설』(심재기·조항범·문금현·조남호·노명희·이선영 공저), 서울: 지식과 교양, 2010.
- 장경희, 『초·중·고등학생의 구어 어휘 조사』(장경희·이삼형·이필영·김명희·김태경·김정선·전은진 공저), 서울: 지식과 교양, 2012.
- 『중앙일보』 2013년 7월 10일.
- _____ 2013년 11월 21일.
- Dürscheid, 『문자언어학』, 김종수 譯, 서울: 유로, 2007.
- Karlgren, 『中國音韻學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1940.
- Jerry Norman, 『Chine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88.
-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語言文字規範手冊』, 北京: 語文出版社, 1992.
- 錢乃榮, 『漢語語言學』,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5.
- 中國教育部語言文字信息管理司,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2012)』, 北京: 商務印書館, 2012.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新華網』 2013년 17월 8일.
- 『中國高校人文社會科學信息網』 2013년 10월 30일.

Abstract

A Search for Common Use Methodology in Chinese Character
for Korean and Chinese

Park Seok-hong

Korean and Chinese who use different language can communicate at 'minimal' or 'basic' level by using Chinese Character. And this means that it is easier to understand each other by using Chinese Character than others. Chinese character act as a 'minimal' or 'basic' communication tool between Korean and Chinese whose language is different. However, single Chinese letter could not fully support their 'minimal' or 'basic' communication. Using Chinese Word is much effective than single Chinese letter for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election on Common Use of Chinese Character, process and methodology with some examples.

Common Use of Chinese Character selection is not about establishing a separate language system such as Esperanto. It is about enhancing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who are familiar to Chinese Character and words. Commonly used Chinese Words could not conduct linguistic function completely by itself but it could act as a mediato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ir wider interaction and better understanding. Anticipating this study could stimulate suggestion on effective new methodology in 'Common Use of Chinese Character' between Korean and Chinese, and moreover amongst Korean, Chinese and Japanese who speak different language.

Key words : 한자(Chinese Character), 한자 공용(Common Use of Chinese Character), 한국 한자어(Sino-Korean), 중국어 단어(Chinese Word), 기초 의사소통(Basic Communication)

투 고 일 : 2014. 1. 10. / 심 사 일 : 2014. 1. 20. ~ 2014. 2. 10. / 게재확정일 : 2014. 2. 20.

【부록1】 한·중 기초 공용한자어의 예시

[I]급

① 價格 可能 假想 假說 假定 家庭 家族 家畜 價值 各國 各別 各自 簡潔 簡單 奸詐 奸邪 干涉
 艱辛 懇切 間接 懇請 簡便 看護 問或 葛藤 感覺 感激 感動 感謝 感想 監獄 感情 感歎 強盜 強力
 強烈 強盛 強占 強制 強調 剛直 強化 開墾 開發 開拓 開學 個人 居間 巨大 距離 巨人 拒絕 健康
 建國 健忘 建設 建築 檢索 揭示 激憤 見聞 牽制 結果 結局 結論 決勝 決心 決定 結合 結婚 兼備
 謙遜 謙虛 境界 警戒 競技 輕薄 警報 經書 輕率 競爭 經濟 警察 傾聽 慶祝 景致 驚蟄 輕快 傾向
 經驗 啓蒙 啓發 計算 繼續 繼承 季節 系統 計劃 苦難 古代 考慮 姑母 拷問 苦悶 告白 固有 古典
 固定 固執 故鄉 曲線 昆蟲 空間 攻擊 恭敬 空氣 恐龍 共產 供養 工業 公演 公園 孔雀 工場
 工程 公主 共通 公平 公布 恐怖 共和 科學 過去 科目 果然 過程 科學 官家 關係 觀念 關聯 官吏
 管理 關心 慣用 關節 觀點 官廳 觀測 光景 廣告 光年 鑛物 光復 廣場 光彩 怪物 校內 交流 驕慢
 巧妙 教務 教師 教授 教室 教養 教育 校長 教材 校訂 交通 交換 狡猾 教會 教訓 救急 區別 區分
 構成 區域 救援 構造 具體 國家 國境 國交 國力 國民 國寶 國語 國有 國籍 國際 軍官 軍隊 軍令
 軍法 軍服 軍事 軍士 軍人 群眾 屈辱 宮闈 勸告 勸力 權勢 勸誘 貴妃 鬼神 貴族 規則 均衡 克服
 劇本 根據 根本 近來 勤務 筋肉 禁止 及第 肯定 期間 器械 器官 器具 機械 機關 基金 記念 機能
 期待 祈禱 記錄 奇拔 技法 基本 氣象 氣象 氣色 氣勢 技術 奇襲 記憶 氣溫 奇異 記者 氣絕 基礎
 旗幟 其他 幾何 喇叭 樂園 難堪 亂離 難處 難題 蘭草 男女 南北 男子 朗朗 浪漫 浪費 朗誦 內外 內容
 ② 螺絲 螺旋 努力 老少 老人 綠色 錄音 論理 論爭 農民 農夫 農事 農場 農村 農閑 樓閣 凜凜 能力
 ③ 多樣 多情 蛋白 單純 丹心 端午 單元 單位 丹頂 端正 單調 團體 達成 擔當 膽力 擔任 談判
 堂堂 當選 當時 當然 當場 代價 大概 大吉 對答 大量 大路 對立 大門 臺本 臺詞 對象 大聲 大小
 大臣 大王 對應 大將 大體 大砲 代表 大型 對話 大會 到達 道路 道理 逃亡 圖謀 屠殺 圖書 都市
 圖章 到底 盜賊 挑戰 導塗 塗炭 圖畫 獨立 讀書 獨裁 獨創 獨特 讀後 突進 突出 動力 同盟 動物
 同伴 東方 同時 同心 動搖 童謠 同意 動作 動靜 同情 同志 同行 童話 杜鵑 豆腐 登山 登場
 ④ 馬廐 魔法 摩擦 漠然 萬年 萬物 萬歲 萬一 滿足 漫畫 望樓 魅力 每日 每週 媒體 梅花 盟誓
 猛獸 滅亡 明明 命名 名聲 名手 銘心 名譽 名稱 明確 母女 侮辱 帽子 募集 謀陷 木刻 牧師 木材
 目的 木版 目標 描寫 武官 無關 無窮 舞臺 武士 無私 無視 無心 武藝 武裝 無盡 無限 默默 文件
 文庫 文明 文物 文書 問安 文人 文字 文章 問題 文集 文學 文化 物件 勿論 物質 物體 未開 迷宮
 未來 美貌 微細 微笑 美術 微賤 美化 民間 敏感 民俗 民謠 民族 敏捷 密封
 ⑤ 博物 博士 拍手 剝奪 迫害 反對 半島 反面 反問 反駁 反復 反射 反省 反應 班長 頒布 發掘
 發達 發令 發明 發生 發音 發展 發表 發揮 訪問 訪問 方法 放送 方式 方案 防禦 方言 放學 妨害
 方向 背景 配給 背叛 排泄 俳優 排斥 配置 白骨 百科 百姓 白人 白日 白紙 百合 百貨 繁殖 繁盛
 番號 繁金 罰金 法院 法庭 壁畫 便秘 變色 變遷 變形 辯護 變化 別名 兵力 兵士 兵營 病院 兵卒
 報告 保管 普及 報答 步道 寶物 寶石 保溫 保障 保存 補充 普通 普遍 步行 保護 寶貨 複雜 服從
 本來 本心 本人 烽燧 富強 不過 不拘 富貴 附近 部隊 埠頭 不滿 不明 父母 夫婦 部分 附屬 夫妻
 不安 復元 夫人 婦人 否定 扶持 不便 不平 部下 不幸 符號 憤怒 分類 分離 分明 分別 分析 分數
 噴水 分野 粉紅 不足 秘訣 比較 悲劇 非難 碑文 秘密 比喻 比率 悲慘 批判 飛行
 ⑥ 事件 事故 思考 士氣 司令 砂漠 使命 事務 事物 四方 史書 事實 事業 使用 飼育 使者 獅子
 史跡 辭典 辭典 事情 社稷 奢侈 社會 散漫 產物 山城 產業 山川 殺人 殺害 相關 相對 想像 詳細
 象牙 箱子 上帝 象徵 爽快 狀態 商品 狀況 生命 生物 生死 生產 生辰 生日 生前 生態 生活 署名

徐徐 棲息 西洋 書店 石膏 石工 選舉 仙女 鮮明 先輩 選手 先祖 選擇 說明 設置 纖細 攝取 性格
 成功 城郭 城門 成分 誠實 誠意 成長 成績 性質 盛行 聖賢 世界 細菌 世紀 世代 勢力 世上 歲月
 細胞 巢窟 消極 少女 少年 騷動 騷亂 消滅 素朴 消防 小便 小說 訴訟 小食 消息 小兒 所有 所在
 素材 素質 小型 疏忽 消化 速度 孫子 損害 率直 衰弱 手巾 手段 首都 數量 首領 修理 壽命 水分
 手術 手腕 收入 數字 水準 輸出 水平 數學 守護 宿舍 瞬間 順序 純粹 瞬息 純真 習慣 昇降 勝利
 詩歌 視覺 時間 時期 猜忌 時代 試圖 是非 市場 時節 詩集 試驗 食口 食糧 植物 食用 食品 神經
 神奇 信念 新郎 神秘 新鮮 神聖 迅速 信義 新任 神主 慎重 申請 神通 信號 質感 室內 實力 失望
 失手 實習 實施 實際 失蹤 實踐 失敗 實現 深刻 心理 審查 心臟 心情 甚至於 深化 十字
 鸚鵡 兒童 樂器 惡臭 惡化 眼鏡 安堵 顏色 安心 安全 安定 壓力 愛國 愛情 愛稱 愛好 愛護 液體
 野生 野心 若干 略圖 掠奪 藥品 弱化 兩國 養老 讓步 糞分 糧食 養殖 漁民 漁夫 漁船 語源
 語彙 抑鬱 言語 嚴格 嚴肅 業務 業績 旅費 旅費 餘生 女性 餘裕 女子 旅行 旅行 歷史 逆風 連結
 研究 燃料 年歲 燃燒 連續 練習 沿岸 軟弱 延長 鉛筆 聯合 閱覽 熱烈 熱心 熱情 熱中 鹽田 玲瓏
 營養 英語 英雄 永遠 領土 影響 靈魂 榮華 榮華 豫感 豫防 豫報 豫想 豫選 藝術 禮儀 禮節 禮讚
 豫測 梧桐 奧妙 五色 污染 午前 午後 屋上 溫度 溫和 完璧 完成 完全 緩和 往來 王子 王朝 外界
 外交 外國 外來 外部 外出 要求 療飢 要緊 搖籃 料理 要素 勇敢 龍宮 勇氣 用途 用語 龍王 用品
 優等 憂慮 雨傘 優秀 優雅 友愛 曲折 偶然 憂鬱 友情 宇宙 運動 隕石 運營 雄辯 雄壯 原告 原稿
 原來 原理 怨望 鴛鴦 原因 院長 遠征 圓滑 越冬 危急 危機 偉大 慰勞 衛生 衛星 委員 偉人
 位置 危殆 威風 危險 威脅 由來 琉璃 有望 有名 遺物 誘發 遺產 柔順 流域 有用 留意 類人猿 唯一
 遺傳 維持 幼蟲 幼稚 留學 流行 誘惑 肉食 肉身 陸地 潤滑 融通 慇懃 隱密 隱隱 銀河 銀行 恩惠
 陰曆 飲食 音樂 應用 意見 意氣 議論 意圖 醫療 義務 疑問 意味 醫師 醫術 儀式 意識 疑心 意外
 椅子 意志 醫學 異口同聲 利器 利己 移動 理論 以上 異常 以外 利用 理由 利益 以前 理解 以後
 人工 人氣 忍耐 引導 人類 人物 印象 各齋 人生 認識 人材 人情 認定 人質 人體 日記 一年 一面
 一般 日報 一部 日常 一生 一人 一一 一定 一齊 一片丹心 任命 妊娠 入口 入學
 資格 自古 瓷器 自己 子女 資料 姊妹 自負 慈悲 磁石 仔細 姿勢 子息 自信 自身 自我 自然
 資源 自由 自尊 自主 姿態 作家 作別 作業 作戰 作品 殘忍 暫時 潛在 雜音 雜誌 將校 將軍
 將來 場面 薔薇 丈夫 壯士 場所 將帥 長壽 裝飾 障礙 才能 材料 財產 宰相 再次 裁判 貯藏
 樁蒲 抵抗 敵國 敵軍 積極 適當 敵手 適用 適應 赤潮 敵陣 適合 展開 前科 全國 傳記 電氣 電氣
 傳達 傳導 專門 全部 戰死 傳說 戰術 展示 傳染 電子 戰爭 電池 全體 傳統 戰鬪 轉學 電話 絕對
 絕望 折半 節約 占領 店員 漸漸 漸次 接近 接受 接種 精巧 程度 整理 正面 情報 政府 情緒 精誠
 精神 正午 正月 精肉 定義 正義 亭子 鄭重 正直 偵察 政策 政治 淨化 正確 提供 帝國 題目 祭條
 提示 提案 帝王 第一 弟子 製作 製品 彫刻 條件 祖國 照明 條目 調查 祖上 朝鮮 造成 早熟 條約
 操作 造作 調節 朝廷 操縱 組織 調和 尊敬 存在 尊重 卒業 宗教 種類 宗廟 終身 終日 種族 種種
 綜合 左右 週末 注目 廚房 周邊 注射 主要 周圍 主義 注意 主人 主張 躊躇 主題 住宅 準備 中間
 中毒 重力 中立 中心 重要 即時 即位 增加 證據 蒸氣 證明 蒸發 症狀 證書 證言 地境 地球 地帶
 地圖 指導 地方 支配 指示 智識 地域 支援 指摘 地點 指定 地中海 支持 地震 地質 支撐 地下 智慧
 指揮 職業 直接 診斷 振動 診脈 進士 真率 眞實 眞心 鎮壓 眞情 眞正 鎮靜 珍珠 眞摯 塵土 進行
 進退 兩難 質問 疾病 秩序 集團 執政 徵兵 徵收 徵用 徵兆
 車道 差異 錯覺 燦爛 贊成 參加 參考 參與 倉庫 創立 蒼白 創意 創造 菜蔬 責任 處女 淒涼
 處理 處方 處身 處置 處刑 千年 千里 千萬 天使 天性 天然 天才 天主 天地 天體 天下 徹底 鐵板
 哲學 青年 青銅 清廉 青天 青紅 體系 體面 體溫 體育 體驗 初期 招待 初等 肖像 初生 草食 草原
 焦點 秒針 最高 最近 最大 最新 最初 最後 追求 推理 秋收 追憶 酋長 推定 推進 推薦 推測 縮小
 祝賀 出勤 出發 衝擊 衝突 充分 忠誠 忠臣 充血 側面 治療 致命 緻密 親密 親切 親戚 侵略 沈默
 侵犯 針葉 侵入 沈着 沈痛 稱頌
 卓子 彈力 誕生 歎息 彈丸 探索 太極 態度 太陽 太平 太平洋 颱風 討論 討伐 痛哭 通過 統領

通信 統一 統治 痛快 統合 通行 通貨 退場 透明 投入 鬪志 特別 特性 特殊 特異 特定 特徵
 ㉗ 波濤 把守 把握 爬蟲 判決 判斷 販賣 板子 偏見 便利 偏重 平價 平凡 平生 平素 平野 平地
 廢水 肺炎 拋棄 葡萄 砲兵 砲手 哺乳 包裝 包含 爆發 暴雨 爆竹 瀑布 暴風 表面 漂白 標示 表示
 表情 標識 表現 風景 豐年 豐富 豐饒 諷刺 風潮 被告 疲困 疲勞 皮膚 筆記 畢生 必需 必要 筆體
 ㉘ 何如 下人 河川 何必 學校 學期 學堂 虐待 學童 學問 學生 學習 學識 學者 閑暇 漢文 寒心
 漢字 合格 合唱 項目 降伏 抗戰 抗體 解決 海棠 該博 解放 解釋 解說 海岸 海洋 行動 行列 幸福
 行事 行星 行爲 行政 行進 向上 許可 許諾 憲兵 獻身 革命 現金 現代 現象 現實 現場 現在 現存
 血管 血壓 協議 形成 形勢 形式 兄弟 形態 形形色色 彗星 好感 好奇 號令 呼吸 昏亂 混雜 洪水 畫家
 花壇 華麗 畫面 和睦 花盆 火山 化石 畫室 化粧 話題 花草 和親 貨幣 和解 擴散 確信 確實
 確認 確定 環境 患者 歡呼 活氣 活動 活潑 闊葉 活用 惶恐 黃金 黃色 皇帝 恍惚 會館 回路 灰色
 會心 會員 會議 回轉 橫財 效果 效能 孝道 孝子 嗅覺 後半 候補 後悔 訓戒 毀謗 毀損 休戰 凶年
 凶惡 黑人 痕迹 恰似 吸收 興味 希望 犧牲

[I -1] ㄱ

㉙ 紹介 ㉚ 榮光 運命 運搬 ㉛ 平和

[II] ㄴ

㉜ 覺悟 居室 舉重 檢察 見學 境遇 階段 古物 告訴 工事 課題 國慶 國樂 矜持 記事 基準 汽車
 ㉝~㉞ 落水 來日 斷乎 大綱 大廳 道具 東洋 銅錢 燈盞 名分 無理 無法 發覺 奔走
 ㉟ 寫真 上峰 商會 生氣 書房 先生 聲援 細部 水道 巡查 時調 新聞 實學 心術
 ㊱ 安寧 約束 語塞 零落 緩行 優勝 運轉 陸橋 應援 依賴 義理 已往 人間 人事 人心 人魚 一旦
 ㊲ 作成 長安 將次 裁斷 節氣 點心 停留 正體 操心 注文 斟酌
 ㊳ 錯雜 參見 清掃 草綠 出口 出入 取材 就職 熾烈 沈沈
 ㊴~㊵ 特技 平平 閉鎖 表記 筆筒 學年 學院 合同 該當 虎狼